

제주 인구증가 정체... 인구정책 ‘기로’

올 11월말 내국인 67만895명... 월 336명 늘어
도, 11일 ‘인구정책 종합계획’ 도민설명회 개최
인구문제 개선 정책목표는 ‘생산연령인구 확대’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는 내국인 기준으로 67만1000여명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생산연령 인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11월말 기준 제주인구는 내국인 기준으로 67만895명이었다. 남성은 33만7339명, 여성은 33만3556명으로 남성이 3783명 더 많았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 48만9230명, 서귀포시 18만1665명이었다.

지난 연말에 비해 3704명이 증가하며 월 평균 336명꼴로 늘었다. 이 추세를 감안하면 올 연말까지 67만12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16년 64만1597명에서 2017년 65만7083명으로 1만5486명, 2018년엔 66만7191명으로 1만108명 증가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외국인인 2만5962명으로, 2018년말 2만4841명에 비해 112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1

월말 기준 제주도의 주민등록 인구는 67만89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화의 추세에 맞춘 제주도의 인구정책 수립도 가시화하게 됐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농어업인 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도민설명회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확대를 설명할 계획이다.

제주도의 인구정책 종합계획은 최근 10년간 유입인구 확대에 증가추세를 이어가던 인구구조는 2016년을 정점으로 지난해부터 순유입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생산연령 인구 감소와 노년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종합적인 인구정책 마련 필요성이 거론돼 왔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인구정책 실무협의회 운영과 도민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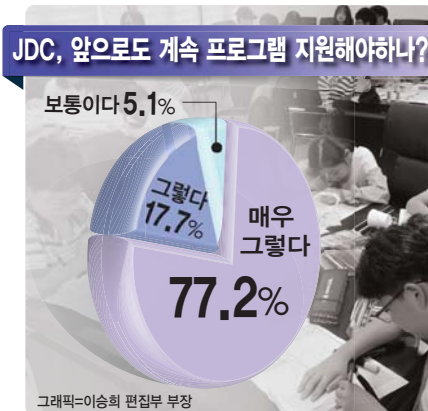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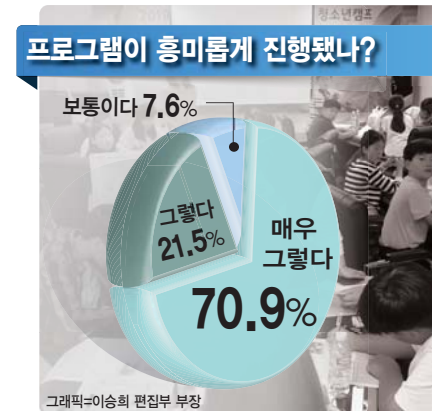
회를 개최했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제주지역 인구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목표를 ‘생산연령인구 확대’로 설정했다.

청년인구 유입확대와 정착주민 유출방지, 생활인구 추계 방안 등에 관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따른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이기도 한 셈이다.

인구정책 종합계획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인구변화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인구정책 전략프로젝트로 청년인구유입 확대 및 유출방지, 정착주민 정착지원, 고령인구의 생산연령 인구 전환이 제시된다.

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JDC 제주탐방 청소년캠프 “흥미로워”

본보, 참가자 대상 설문 결과... 93.8% “내게 도움돼”

청소년의 눈으로 환경·교통 등 제주 현안을 짚어보기 위해 올해 첫 운영된 ‘2019 JDC와 함께하는 제주탐방 청소년캠프’가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현안 점검을 위해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진단체보는 시간을 가졌던 현장취재 프로그램이 흥미롭게 진행됐으며, 제주의 환경을 깊이 생각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본보는 JDC와 함께 지난 9~10월 총 4회에 걸쳐 도내 초·중·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1일 캠프 형식의 ‘2019 JDC 청소년캠프’를 진행했다.

참가자 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2.4%가 “프로그램이 흥미롭게 진행됐다”고 응답했다. ‘매우 그렇다’가 70.9%, ‘그렇다’가 21.5%였으며, ‘보통이다’는 7.6%였다.

또 93.8%가 “수업 내용이 내게 도움이 됐다(‘매우 그렇다’ 76.3%, ‘그렇다’ 17.5%)”고 답했으며, “또 참여하고 싶다”며 긍정적인 대답을 한 참가자는 86.3%(‘매우 그렇다’ 71.3%, ‘그렇다’ 15%)인 69명이었다. 10명(12.5%)은 ‘보통’이라고 답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JDC가 지원하는 청소년캠프가 JDC를 알리는데 도움이 되는만큼 지속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응답자의 92.6%가 “청소년캠프를 진행하는 JDC의 노력이 JDC를 알리는데(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JDC가 앞으로 청소년 캠프 사업을 계속 지원해야한다”는 응답은 94.9%(‘매우 그렇다’ 77.2%, ‘그렇다’ 17.7%)였다. 오은지기자

평화재단 출연금 등 4·3 관련 예산 증액

국회, 오늘 정부 예산안 의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주 4·3 평화재단 출연금과 유적지 발굴 및 보존 예산이 증액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9일 “매년 30억원에 머무르던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이 올해 총 37억 2500만원으로 증액되고, 유적지 발굴 및 보존을 위한 예산도 10억5000만원으로 기존보다 3억원이 증액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4·3 관련 예산을 비롯해 하귀파출소 신축 예산이 5억 2600만원 증액됐고, 제주 개척 공공외교 세미나를 위한 예산도 6억45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응급 상황 시 경찰헬기로 응급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항공대 운영비도 5억5000만원 증액됐다.

또한 현무암의 다공질 지질구조로 인해 싱크홀 등이 발생하는 제주도



구름 사이로 고개 내민 한라산 반짝 추위가 물러나며 다시 포근한 날씨가 시작됐다. 제주지역은 큰 추위 없이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오전 운무에 휩싸인 한라산이 구름 사이로 살포시 고개를 내밀며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강희만기자

의 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사업 예산도 증액됐다. 건설기술연구원의 ‘제주생활문제해결형 도로 SOC 사업 기술 개발’ 연구 예산 6억원 증액으로 도로 싱크홀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보행자 안전 횡단

보도시스템 개발에 투자해 노인과 어린이들의 안전 보행을 위한 실증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 4·3의 중요성이 예산을 통해서 인정받았다고 믿는다. 또한 제주도민의 안전과 노

인 및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위한 예산이 증액된 것도 고무적”이라며 예산 증액 의미를 밝혔다.

한편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한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농촌관광휴양시설 안전점검 제주시, 지역내 214곳 대상

제주시는 이달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농촌관광휴양시설 21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관광농원 14개소에 대해서는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농어촌민박 200개소는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관광농원과 농어촌민박 모두 안전관리체계, 화재안전관리, 안전사고관리, 위생관리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또 농어촌민박의 경우 안전점검시 야영장, 수영장 등 별도의 등록이 필요한 시설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하도록 안내 및 관련부서에 통보해 조치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농어촌정비법 위반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고대로그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시민 모두가 꿈꾸는 행복도시’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서귀포시의 새로운 10년,
희망과 행복의 2020년대를 향하여
서귀포시가
더 뛰고
더 높이 날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